

노인가계의 경제구조 분석

The Economic Status of Elderly Households

상명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조 교수 양 세 정
인천대학교 생활자원관리학과
부 교수 성 영 애

Dept. of Consumer and Housing Studies, Sangmyu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Yang, Se-Jeong
Dept. of Home Management, University of Inchon,
Associate Professor : Sung, Young-Ae

〈목 차〉

- | | |
|--------------|----------|
| I. 문제제기 | IV. 분석결과 |
| II. 선행연구의 고찰 | V. 결어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provide the informations about the economic status of elderly households. Utilizing the 1996 national household data, the economic status was investigated by the components of two financial statements: the income and expense statement and the balance sheet statement. Thus it included incomes, consumption, propensity to consume, savings(financial assets), debt amount and net-savings. The elderly households were compared with the nonelderly households. The subgroups of the elderly were also compared. They were divided based on the employment status of the head and household composit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conomic status of the elderly was worse compared to the nonelderly. There were also variations among the subgroups of the elderly households. In general, the economic status of retired households and single households were worse than those of employed households and of the households composed of couple and the elderly living with children.

◆ key word: 노인가계, 경제구조, 가계경제수지, 소득, 소비지출, 저축, 부채

I. 문제제기

노인인구의 증가는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 역시 노인인구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크게 상승하고 있다. 60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에는 5.4%였던 것이 1980년에는 6.1%, 1995년에는 9.1%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추세는 2010년에 14.2%, 2020년에는 20.1%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통계청, 2000).

노인인구 또는 노인가계의 증가는 국가경제적인 측면에서 생산력의 감소와 부양부담의 증가라는 문제를 동반함으로써 노인부양문제, 노인복지문제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안정적 노후설계과제의 중요성을 증가시킨다.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정책이나 노년기를 대비한 각 개인의 노후설계는 무엇보다도 노인에게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도출될 수밖에 없다(이가옥·서미경·고경환·박종돈, 1994). 따라서 노인인구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의 제공작업이 매우 필요하며 노인의 경제구조에 대한 자료의 분석은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다. 본 연구는 노인가계의 경제구조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노인가계의 경제구조는 가장의 취업여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노인기로 접어들어 부딪히는 가장 중요한 경제사건 중의 하나는 은퇴인데, 은퇴란 곧 근로소득의 상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인은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원예의 의존도가 증가하게 된다. 재산소득의 중요성도 크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자녀와 동거로서 노인기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산업화로 인한 지역간 빈번한 이동 및 자녀의 부양의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노인 혼자 사는 노인단독가계나 또는 노부부만으로 구성된 노인부부가계를 형성하여 생활하는 가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의 취업지위 및 가구구성의 변화로 인해 많은 노인들은 과거와는 다른 경제생활을 영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가계의 가계경제구조를 다각적으로 고찰하여 관련자료를 제공하는 것

이다. 먼저 노인가계의 경제구조를 비노인가계와 비교함으로써 노인가계의 상대적 지위를 파악하며 비노인가계에서 노인가계로 전이하는 과정에서의 경제적 변화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노인가계는 다시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 노인단독가계, 노인부부가계, 자녀동거노인가계로 분리하여 분석함으로써 취업과 가구구성에 따른 노인가계경제상의 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II. 선행연구의 고찰

1. 가계경제구조의 기본적 요소

가계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가계의 복지를 측정하는 데 이용되는 소득, 소비지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된다. 가계소득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수집이 용이하고 의미하는 바가 분명하기 때문에 (Palmer, Smeeding & Jencks, 1980), 가계복지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지표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재소득보다는 항상소득이 복지를 결정하며 또한 금전소득 이외의 비금전소득을 통해 생활이 유지되기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계복지의 수준은 소비를 통해 달성된다는 관점에서 소비지출의 중요성이 주장되기도 한다(Friedman, 1956; Modigliani & Brumberg, 1962, 문숙재·김진미·김연정 1996에서 재인용). 한편 과거에서 축적된 자산이나 유산이야말로 가계복지를 측정하는데 중요한 지표이며, 특히 노인가계의 경우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는 주장이 있어왔다(Upp, 1983; Torrey & Tauber, 1989; Radner, 1989 등). 일부 연구에 의하면 노인가계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부채의 이용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부채 또한 가계운영상의 중요한 수단임과 동시에 부채로 인한 부담은 가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서 가계복지의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심영, 1993; 최현자, 1996).

이상의 가계복지측정을 위한 기본요소는 개인가계설계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된다(Garman & Fogue, 1994; 이기춘 등, 1998). 즉 가계설계를 위

해서는 수입지출상태표와 자산상태표 작성을 통한 재무상태의 분석이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서 이를 근거로 미래에 대한 행동계획이 추출된다. 수입지출은 일정 기간동안의 자원의 유동적 흐름(flow)을 보여주며 동기동안 가계의 소비생활이 영위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와는 달리 자산상태는 한 시점에서 축적된 자원의 상태(stock)로 가계의 경제적 상태를 가늠해 해주는 자료이며 경제상태의 향상여부를 알려주는 자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가계경제구조라 함은 소득과 소비지출을 기본자료로 하여 분석하는 수입지출구조와 자산과 부채에 관한 자산상태자료를 분석하는 자산부채구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2. 노인가계의 정의

노인과 관련한 기존연구들에 의하면 노인가계의 분류는 연구목적에 따라 55세에서 65세 사이를 기점으로 나누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 노인복지법은 만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반면 노령자 고용촉진법은 55세를 노인의 기준 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관련 연구에서 노령선을 규정하는 특징으로 은퇴 또는 직업노동의 단절과 같은 사회활동의 단절을 들 수 있으며, 또는 조부모가 되는 시기, 신체적인 의존성의 증가가 일어나는 시기 등을 들고 있다(서병숙, 1993; 임춘식, 1995). 이러한 특징 중 노인가계의 경제구조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사회활동의 단절이라는 특징을 노인가계를 분류하는 근간으로 삼고자 하였으며, 즉 가계에서 가구주의 은퇴가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시점을 노인가계로 정의하고자 하였다.

경제활동인구관련 통계를 추정함에 있어 60세 이상을 노인층으로 나누는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통계청, 1995), 또한 사회적으로도 퇴직 정년을 정하는 기준으로 60세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고철기 등, 1992, p.13)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계를 노인가계로 칭하기로 하며, 이러한 정의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구소비실태조사 의 노인가계의 분류방법과도 일치한다.

3. 노인가계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우리 나라보다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일찍 정착된 국가의 경우 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관련자료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Clark, Kreps & Spengler(1978)가 노년의 경제(economics of aging)에 대한 리뷰논문을 쓴 이래 노인에 대한 연구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노인의 경제적 지위, 은퇴, 소득, 소비, 저축 등에 관한 연구가 여러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었고, 노인에 대한 자료의 제공과 분석은 Social Security Bulletin과 같은 Journal의 주요한 사업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최근에 이르러서야 노인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들은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비교에 일차적인 목적을 둔 연구(문숙재 등, 1996; 성영애·양세정, 1997 등)와 노인가계의 내재적 다양성에 관심을 두고 노인가계를 세분하여 노인가계의 특정 유형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집단간의 비교를 시도한 연구로 나뉠 수 있다(고철기 등, 1992; 이가옥 등, 1994; 성영애, 1994; 김순미, 1998; 김연정, 1998; 심영, 2000 등).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경제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연구한 문숙재 등(1996)에 따르면 1993년도 우리나라 노인가계의 가계소득과 지출은 비노인가계보다 낮았고 전통적인 생애주기가설에서 노인가계의 경제수준을 완충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가계자산도 두 집단이 비슷한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연령을 기준으로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를 구분하여 연구하고 복지정책이 수립되는 것은 연령과 은퇴와의 긴밀성 때문이다. 가구주의 취업여부는 가계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으로 노인의 경제적 지위는 은퇴를 통하여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된다(Clark et al., 1978, Hurd, 1990에서 재인용). 그러나 단순연령을 근거로 노인가계를 분석하게 되면 엄밀한 의미에서 관심을 기울이고자 하는 은퇴노인의 경제수준이 과다평가될 수 있다(성영애, 1994).

취업노인과 은퇴(또는 비취업)노인의 차이는 여러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Moehrlie(1990)은 노인의 취

업여부에 따라 소비지출패턴이 달라짐을 보여주고 있으며, Rubin & Nieswiadomy(1994)도 노인의 취업여부가 소비지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제시하였다. 우리 나라의 1994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가계를 은퇴노인가계와 취업노인가계로 구분하여 가계의 소득, 지출 및 자산을 비교분석한 김연정(1998)에 의하면, 은퇴노인가계의 총소득은 취업노인가계보다 적으나 소비지출수준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은 은퇴가계가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천별 구성비에서 차이가 보여졌으며 소비지출구성비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의 식료품비 지출규모를 비교한 이윤금(1999)에서는 기타 가계의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에 가정내 식료품비의 지출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외식비지출은 취업노인가계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계의 가구구성 또한 가계경제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노인가계 중 단독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8년 9.6%에서 1994년에는 14.9%로 증가하였고, 부부노인가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13.3%에서 23.6%로 증가하는 추세이다(이가옥 등, 1994). 이 연구에서는 노인을 단독노인, 부부노인인, 자녀동거노인으로 구분하여 경제상황을 주관적으로 조사하였는데, 독신노인이 부부노인가계, 자녀동거노인가계에 비해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대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최근에 충청지역 단독가계 노인소비자의 소득, 자산, 소비지출을 분석한 심영(2000)의 연구결과를 보면 유배우 노인가계가 남자노인가계나 여자노인가계에 비해 소득, 자산 및 소비지출 수준이 모두 높으며 소득, 자산 및 소비구조도 서로 다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상태를 포괄하는 노인가계의 경제구조를 노인가계와 비교하며 노인가계를 취업여부와 가구구성에 따라 분류하여 이들 집단을 비교하고자 한다. 상기의 연구들과 본 연구의 차이점은 전국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의 상태를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하였다는 것이다. 즉, 수입과 지출의 비교분석을

통한 가계수지의 분석, 저축과 부채의 비교를 통한 순저축보유액 등의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세분화된 노인가계내의 비교뿐만 아니라 비노인가계와 비교를 통하여 비노인가계에서 노인가계로의 전이과정을 추론하고자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용어의 정의

1) 가계경제구조의 요소

본 연구에서의 가계경제구조의 분석이라 함은 크게 유량자원인 소득과 지출상태의 분석과 저장자원인 자산상태의 분석을 포함한다. 수입과 지출상태는 ①가계경제수지 ②소득규모 및 구조 ③소비지출규모 및 구조의 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여기에서 가계경제수지란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한 흑자액과 평균소비비성향의 계산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소득은 소득출처를 중심으로 소득규모와 소득출처간 구성비를 분석하는데, 소득출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소비지출의 경우 총소비지출 분석과 함께 세부지출비목별 자료를 함께 제공하였다. 이때 세부지출비목은 원자료의 지출비목인 10대 비목을 사용하되 다음과 같이 식료품비에서 외식비를 분리하여 11개 세부비목을 분석기준으로 하였다.

- 식료품비: 곡류, 육류, 유란, 채소, 과일, 음료, 주류, 빵 및 과자류 등
- 외식비: 식사대, 음주대, 학교급식, 기타외식
- 주거비: 월세, 주택설비수리, 아파트관리비, 화재보험료 등 기타주거
- 광열수도비: 수도료, 전기료, 연료
- 가구집기가사용품: 가구, 식기주방용품, 가사잡화 및 소모품, 침구 및 가사서비스
- 피복신발: 피복, 신발 및 관련서비스
- 보건의료: 의약품, 보건의료용품기구, 진료비 등 보건의료서비스
- 교육: 납입금, 교과서, 보충교육, 기타교육비, 문방구

- 교양오락: 신문도서, 교양오락용품기구, 오락시설 이용료 등 교양오락서비스
- 교통통신: 개인교통, 공공교통, 통신
- 기타: 담배, 이미용, 경조사, 회비, 장신구, 종교관 계비 등

또한 가계의 자산상태는 ①순저축보유액 ②저축규모와 구조 ③부채규모 및 구조의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저축 및 부채의 세부출처의 분류는 원자료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저축은 요구불저금, 저축성저금, 비은행권저금, 보험, 유가증권, 계불입금, 빌려준 돈으로 구분하였고, 부채는 은행권부채, 비은행권부채, 보험, 할부/외상잔액, 계탄 돈, 빌린 돈으로 구분하였다.

2) 노인가계의 분류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가 60세이상인 가계를 노인가계로 칭하기로 한다. 노인가계는 가계특성에 따라 가계경제구조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따라서 이를 다시 세부적으로 취업가계와 비취업가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가구주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취업가계로 정의하였으며, 그 밖의 가계를 비취업가계로 하였다. 또한 가구구성에 따라 노인가계를 단독가계, 부부가계, 자녀동거가계로 나누었다. 노인단독가계는 노인 혼자서 가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노인이면서 부부만으로 가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는 부부가계로 정의하였다. 이 밖에 여타가구원과 함께 기거하고 있는 노인가계를 자녀동거가계로 정의하였다.

2. 자료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하여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의 기초자료(raw data)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통계청에서 5년을 단위로 실시하며 전국 비농가를 대상으로 수입과 지출, 연간소득, 저축 및 부채, 내구재 보유현황 등 가계의 생활수준 및 실태에 관한 종합적인 자료를 포함한 것으로(통계청, 1997), 본 연구에서는 원자료의 24,290가구 중 가구원이 함께

동거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24,276가구를 분석대상으로 사용하였다.

3. 통계분석 방법

소득 및 소비지출, 그리고 저축/부채구조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본 연구는 기술통계기법을 주로 사용하였고, 집단간의 항목별 평균치 차이에 대한 유의수준을 검증하기 위해 t-검증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은 SAS-PC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V. 분석결과

1. 노인가계와 사회인구학적 특성

1)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비교

<표 1>은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나타낸다. 전체 분석대상가구 중 비노인가계가 87.9%, 노인가계가 12.1%를 차지하였다. 노인가계를 비노인가계와 비교하였을 때 평균 가구원수는 2.16명으로 적은 편이었다. 노인가계의 가구주 연령은 물론 높고,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낮은 편이며, 가구주가 남성인 가계의 비율이 56.9%로 비노인가계 81.6%보다 매우 낮아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가 많았다. 노인가계의 자가보유율은 비노인가계보다 매우 높은 편이나 가구주의 취업률은 더 낮은 편이다.

2)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의 비교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노인가계 중 가구주가 취업 중인 가계는 45.6%였다.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를 비교하여 보면 비취업노인가계의 가구원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가구주 연령은 더 높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남성인 가계의 수가 적은 편이었다.

3) 단독노인가계, 부부노인가계, 자녀동거노인가계의 비교

가구구성에 따라 노인가계를 분류하여 보면, 혼자 기거하고 있는 단독노인가계는 전체 노인가계의 33.0%에 해당되었으며, 노부부만 기거하는 가계의 비

〈표 1〉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사회인구적 특성	비노인가계	노인가계	노인가계		단독가계	부부가계	자녀동거가계	
			취업가계	비취업가계				
총대상가구 수	21,331	2,945	1,343	1,602	972	913	1,060	
(%)	(87.9%)	(12.1%)	(5.5%)	(6.6%)	(4.0%)	(3.8%)	(4.4%)	
(%)		(100.0%)	(45.6%)	(54.4%)	(33.0%)	(31.0%)	(36.0%)	
가구원수	평균(인)	3.35	2.16	2.62	1.78	1.00	2.00	3.37
	1인 가계	10.4	33.0	17.1	46.3	100.0	-	-
	2인 가계	14.6	36.8	36.9	36.6	-	100.0	16.0
	3인 가계	22.0	17.1	23.8	11.5	-	-	47.6
	4인 가계	36.1	7.1	10.9	3.9	-	-	19.8
	5인 이상	16.9	5.9	11.2	1.6	-	-	16.5
가구주	평균(세)	39.6	67.4	64.1	70.1	70.2	67.6	64.7
연령	30대	16.4	-	-	-	-	-	-
	30대	36.4	-	-	-	-	-	-
	40대	28.6	-	-	-	-	-	-
	50대	18.6	-	-	-	-	-	-
	60대	-	66.8	88.5	48.6	47.7	66.7	84.3
	70대이상	-	33.2	11.5	51.4	52.3	33.3	15.7
가구주	무학	1.3	31.2	17.6	42.6	58.8	15.2	19.6
교육수준	초졸	10.4	29.4	32.4	27.0	27.5	29.4	31.3
	중졸	16.0	12.4	15.0	10.2	6.1	15.9	15.1
	고졸	45.8	15.1	17.7	12.9	4.6	22.7	18.2
	대졸이상	26.5	11.9	17.3	7.4	3.0	16.9	15.8
주거상태	자가	46.2	73.3	73.1	73.4	59.5	81.8	78.6
	비자가	53.8	26.7	26.9	26.6	40.5	18.2	21.4
가구주	있음	93.6	45.6	100.0	0	76.3	52.7	35.8
직업유무	없음	6.4	54.4	0	100.0	23.7	47.3	64.2
가구주성별	남	81.6	56.9	70.9	45.2	11.3	90.0	70.2

을 또한 노인가계의 1/3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가계의 경우 가구주 평균 연령이 가장 높았고 교육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여성인 경우가 매우 많았고, 취업률은 가장 높았으나 자가보유율이 가장 낮았다.

2. 가계의 수입지출상태 분석

1)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비교

가계경제수지의 비교 : 〈표 2〉는 노인가계와 비

노인가계의 소득과 지출상태를 비교한 가계경제수지 전반에 대한 표이다.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가계수지 상황을 살펴보면, 노인가계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1,201,027원인데 이중 134,940원을 비소비지출로 지출하여 가처분소득은 월평균 1,066,087원으로 집계되었다. 가처분소득 중 838,456원을 지출함으로써 227,631원의 월평균 흑자액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평균소비성향 88.79%에 해당된다. 이상의 모든 수치를 비노인가계와 비교하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어 평균소비성향을 제외하고는 노인가계

의 소득, 지출, 흑자액은 비노인가계보다 적었다.

〈표 2〉에서는 괄호 안에 비노인가계의 수치를 100으로 하여 노인가계의 수치의 상대적인 비율 제공함으로써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를 비교하였다. 노인가계는 가계소득의 경우 비노인가계의 가계소득의 59.1%, 가처분소득은 57.4%였는데 가족구성원수를 고려하여 1인당 가처분소득을 계산하여 보아도 노인가계의 가처분소득은 비노인가계의 77.1%정도이다.

노인가계의 소비지출수준은 비노인가계의 66.2%정도이므로 평균적인 가계는 흑자를 보게 된다. 생애주기설에 의하면 노인가계의 경우는 오히려 저금의 인출(dissaving)을 통한 소비가 이루어지므로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비노인가계보다 노인가계의 흑자율이 낮고 소비성향이 높은 것은 예측되는 바이나, 이러한 예측은 합리적 소비자의 경우 충분한 자산형성을 이루었다는 가정에 근거를 둔 것이다.

〈표 2〉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가계경제수지 비교

(단위: 원, %)

구 분	노인가계(1)	비노인가계(2)	(1)-(2)(t-검증)
①가계소득	1,201,027 (59.1) ^a	2,030,963 (100.0)	-829,936**
②비소비지출 ^b	134,940 (78.0)	172,951 (100.0)	-38,011**
③가처분소득(①-②)	1,066,087 (57.4)	1,858,012 (100.0)	-791,925**
· 1인당가처분소득	467,485 (77.1)	606,689 (100.0)	-139,204**
④총소비지출	838,456 (66.2)	1,266,182 (100.0)	-427,726**
· 1인당소비지출	390,283 (94.2)	413,966 (100.0)	-23,683**
⑤흑자액(③-④)	227,631 (38.5)	591,830 (100.0)	-364,199**
⑥평균소비성향(④/③)	88.79	71.18	17.61**

^{*}p<.05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a 비소비지출은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등이 포함된다.

^b 괄호 안은 비노인가계를 100%로 하였을 때의 상대적 비율임.

〈표 3〉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소득원천별 규모 및 구조 비교

(단위: 천원, %)

구 분	노인가계(1)	비노인가계(2)	(1)-(2)(t-검증)
총가계소득(연평균)	14,412 (100.0)	24,372 (100.0)	-9,960**
○근로소득	6,224 (43.2)	14,776 (60.6)	-8,552**
· 가구주소득	3,686 (25.6)	11,561 (47.4)	-7,875**
· 배우자소득	468 (3.2)	1,732 (7.1)	-1,264**
· 기타가구원소득	2,070 (14.4)	1,483 (6.1)	587**
○사업소득	3,147 (21.8)	7,446 (30.6)	-4,299**
○부업소득	86 (0.6)	114 (0.5)	-28*
○재산소득	2,025 (14.1)	1,000 (4.1)	1,025**
○이전소득	2,930 (20.3)	1,035 (4.2)	1,895**
· 연금수혜	711 (4.9)	89 (0.4)	622**
· 사회보장수혜	138 (1.0)	26 (0.1)	112**
· 기타이전소득	2,082 (14.4)	921 (3.8)	1,161**

^{*}p<.05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소득규모와 소득원의 비교 : <표 2>와 같이 집계된 가계경제수지는 소득과 소비지출행동의 결과이다. 이에 따라 <표 3>에서는 노인가계의 소득규모 및 원천을 비노인가계와 비교하여 보았다. 비노인가계보다 노인가계의 총가계소득은 유의미하게 더 적었는데, 소득원천별로 규모를 보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부업소득은 더 적은 반면 재산소득이나 이전소득의 규모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천별 비중을 살펴보면 노인가계나 비노인가계 모두 근로소득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사업소득, 이전소득, 재산소득, 부업소득의 순이었으나 비중치는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비노인가계에 비해 노인가계의 평균 가계소득수준이 적은 것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부업소득이 적기 때문이며 이전소득이나 재산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노인가계의 소득원천 중 사회보장제도나 자식들에게서 비롯되는 이전소득의 비중이 20.3%에 이르는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재산소득 또한 비노인가계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소비지출의 비교 : <표 4>는 소비지출비목별 규모 및 비중을 살펴보았다. 가족원수의 차이로 인하여 노인가계의 소비지출 규모는 비노인가계의 소비지출규모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고, 따라서 직접적으로 비

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분석결과에 의하면 보건의료비에 있어서 노인가계의 지출이 비노인가계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한 지출구성비를 살펴보면 노인가계는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등 필수소비비목에 대한 지출비중이 높은 반면, 사회활동과 관련이 높은 피복신발비, 교통비 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또한 이들 노인가계는 대개 자녀가 이미 장성했기 때문에 교육비 지출 비중이 2.1%에 불과해 비노인가계의 9.0%와 대조를 나타내었다. 노인가계의 보건의료비지출은 총소비지출의 8.0%를 차지하는 주요지출비목이었다. 한편 경조비 등을 포함하는 기타소비지출의 구성비 또한 노인가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5>는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1인당 소비지출규모를 분석한 결과이다. 1인당 소비지출규모는 비노인가계가 월평균 413,966원을 지출함으로써 노인가계의 390,283원에 비해 많았다. 노인가계는 식료품비 지출을 많이 하는 반면, 비노인가계는 외식비 지출이 많았다. 이 밖에 노인가계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출을 하는 비목은 주거 및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 기타소비지출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지출비목별 소비지출규모 및 구성비

(단위: 원, %)

소비지출 비목	노인가계(1)	비노인가계(2)	(1)-(2)(t-검증)
○총소비지출	838,456 (100.0)	1,266,182 (100.0)	-427,726**
식료품	188,255 (22.5)	232,003 (18.3)	-43,748**
외식	57,742 (6.9)	109,619 (8.7)	-51,877**
주거	45,196 (5.4)	51,847 (4.1)	-6,651
광열·수도	59,420 (7.1)	65,471 (5.2)	-6,051**
가구집기·가사용품	37,733 (4.5)	54,559 (4.3)	-16,826**
피복·신발	55,110 (6.6)	114,950 (9.1)	-59,840**
보건·의료	66,790 (8.0)	57,936 (4.6)	8,854**
교육	17,324 (2.1)	113,783 (9.0)	-96,459**
교양·오락	34,831 (4.2)	60,925 (4.8)	-26,094**
교통·통신	73,004 (8.7)	158,622 (12.5)	-85,618**
기타소비지출	203,051 (24.2)	246,468 (19.5)	-43,417**

*p<.05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표 5〉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지출비목별 1인당 소비지출규모

(단위: 원, %)

소비지출 비목	노인가계(1)	비노인(2)	(1)-(2)(t-검정)
총소비지출	390,283 (100.0)	413,966 (100.0)	-23,683**
식료품	91,612 (23.5)	72,457 (17.5)	19,155**
외식	22,507 (5.8)	38,842 (9.4)	-16,335**
주거	24,880 (6.4)	20,503 (5.0)	4,377**
광열·수도	31,215 (8.0)	21,687 (5.2)	9,528**
가구집기·가사용품	17,659 (4.5)	17,953 (4.3)	-294
피복·신발	22,936 (5.9)	39,894 (9.6)	-16,958**
보건·의료	33,868 (8.7)	18,463 (4.5)	15,405**
교육	4,970 (1.3)	28,863 (7.0)	-23,893**
교양·오락	15,325 (3.9)	20,998 (5.1)	-5,673**
교통·통신	31,479 (8.1)	52,345 (12.6)	-20,866**
기타소비지출	93,833 (24.0)	81,961 (19.8)	11,872*

*p<.05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2)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의 비교

가계경제수지의 비교 : 〈표 6〉은 노인가계를 취업가계와 비취업가계로 나누어 가계수지를 t-test를 통하여 비교한 표이다. 또한 〈표 6〉에서는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를 비노인가계와 비교하기 위해 괄호 안에 비노인가계의 값을 100으로하여 상대적비를 각각 계산하였다. 우선 t-test 결과를 위주로 살펴보면 예상하였듯이 취업노인가계보다 비취업노인가계의 가계수지가 모든 면에서 유의미하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가계의 평균 가처분 가계소득은 631,311원인데, 총소비지출수준은 이를 초과한 636,940원으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5,629원의 적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균소비성향이 100%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반면 취업가계의 경우는 72.51%의 평균소비성향을 보여주었다. 즉 같은 노인가계라도 취업가계는 저축여력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다시 비노인가계와 비교를 하여보면 비취업노인가계의 경우는 가계소득, 가처분가계소득이 비노인가계의 34~35% 수준이며, 1인당가처분소득은 이보다 더 낮은 27.2%수준이었다. 반면 비취업노인가계의 총소비지출규모는 비노인가계의 50% 정도로서 결국 적자가계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현재의 유량의 소득으로서는 소비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저량으로서의 가계저축의 이용, 소비지출의 엄격한 통제 등이 이루어진다고 추측된다.

그러나 취업 노인가계는 비노인가계와 비교하여 볼 때 비취업가계만큼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취업노인가계는 비취업노인가계보다는 오히려 비노인가계와 더 유사한 구조를 보여주는 경향이였다. 즉 특히 1인당 가처분소득은 취업노인가계가 비노인가계보다 미미한 정도이지만 더 높다. 또한 평균소비성향도 취업노인가계 72.51%, 비노인가계 71.18%로서 유사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연령을 근거로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를 구분하여 일괄적으로 경제수준을 말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결과로, 노령과 함께 동반되는 은퇴가 가계경제에는 더욱 큰 영향을 미침을 확인해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소득규모와 소득원의 비교 : 가계소득을 소득원천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비취업노인가계의 소득수준은 취업노인가계의 취업노인가계의 반도 못 미치는 40.2%수준이다(표 7). 취업노인가계의 소득원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규모가 비취업노인가계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산소득이나 이전소득의 규모는 비취업노인가계의 경우 더 높았다. 취

〈표 6〉 노인가계: 취업가계와 비취업가계의 가계경제수지 비교

(단위: 원,%)

구 분	취업노인가계(1)	비취업노인가계(2)	(1)-(2)(t-검증)	비노인가계(2)
①가계소득	1,779,754 (87.6) ^a	715,561 (35.2)	1,064,193**	2,030,963 (100.0)
②비소비지출 ^a	195,367 (113.0)	84,251 (48.7)	111,116**	172,951 (100.0)
③가처분소득(①-②)	1,584,387 (85.3)	631,311 (34.0)	953,076**	1,858,012 (100.0)
· 1인당가처분소득	613,981 (101.1)	344,596 (27.2)	269,385**	606,689 (100.0)
④총소비지출	1,078,684 (85.2)	636,940 (50.3)	441,744**	1,266,182 (100.0)
· 1인당소비지출	426,808 (103.1)	359,644 (86.9)	67,164**	413,966 (100.0)
⑤흑자액(③-④)	505,703 (85.4)	-5,629 (-) ^c	511,332**	591,830 (100.0)
⑥평균소비성향(④/③)	72.51	102.42	△29.91**	71.18

*p<.05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a 비소비지출은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등이 포함된다.^b 괄호 안은 비노인가계를 100%로 하였을 때의 상대적 비율임.^c 계산불가

〈표 7〉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의 소득원천별 규모 및 구조 비교

(단위: 천원, %)

구 분	취업노인가계(1)	비취업노인가계(2)	(1)-(2)(t-검증)	비노인가계
총가계소득(연평균)	21,357 (100.0)	8,587 (100.0)	12,770**	24,372 (100.0)
○근로소득	12,327 (57.7)	1,104 (12.9)	11,223**	14,776 (60.6)
· 가구주소득	7,778 (36.4)	253 (2.9)	7,525**	11,561 (47.4)
· 배우자소득	892 (4.2)	113 (1.3)	779**	1,732 (7.1)
· 기타가구원소득	3,657 (17.1)	738 (8.6)	2,919**	1,483 (6.1)
○사업소득	6,676 (31.3)	186 (2.2)	6,490**	7,446 (30.6)
○부업소득	65 (0.3)	103 (1.2)	-38*	114 (0.5)
○재산소득	1,263 (5.9)	2,665 (31.0)	-1,402**	1,000 (4.1)
○이전소득	1,026 (4.8)	4,528 (52.7)	-3,502**	1,035 (4.2)
· 연금수혜	240 (1.1)	1,106 (12.9)	-866**	89 (0.4)
· 사회보장수혜	53 (0.2)	209 (2.4)	-156**	26 (0.1)
· 기타이전소득	733 (3.4)	3,213 (37.4)	-2,480**	921 (3.8)

*p<.05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업가계의 첫 번째 소득원은 근로소득이며 두 번째 소득원은 사업소득이며, 재산소득이나 이전소득의 비중은 미미한 정도로서, 취업가계는 소득의 57.7%를 근로소득으로 충당하는데 비하여 비취업노인가계는 배우자 및 기타가구원, 가구주 자신의 근로소득(연평균소득이기 때문에 조사기간 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은 불과 12.9%를 차지하고 있고 소득의 과반수이상(52.7%)을 이전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취업가계와 비취업가계의 가계소득차이의 근원은 비취업가계의 근로소득의 상실이라고 할 수 있다.

취업노인가계의 소득수준은 연평균 가계소득은 비노인가계의 24,372천원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었다. 취업노인가계의 소득구조도 비노인가계의 소득구조와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었다.

소비지출의 비교 : 〈표 8〉에 의하면 취업노인가계

〈표 8〉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의 지출비목별 소비지출규모 및 구성비

(단위: 원, %)

소비지출 비목	취업노인가계(1)	비취업노인가계(2)	(1)-(2)(t-검증)	비노인가계
총소비지출	1,078,684 (1000.0)	636,940 (100.0)	441,744**	1,266,182 (100.0)
식료품	232,354 (21.5)	151,263 (23.7)	81,091**	232,003 (18.3)
외식	93,602 (8.7)	27,661 (4.3)	65,941**	109,619 (8.7)
주거	46,406 (4.3)	44,180 (6.9)	2,226	51,847 (4.1)
광열·수도	65,666 (6.1)	54,181 (8.5)	11,485**	65,471 (5.2)
가구집기·가사용품	45,594 (4.2)	31,138 (4.9)	14,456*	54,559 (4.3)
피복·신발	81,952 (7.6)	32,594 (5.1)	49,358**	114,950 (9.1)
보건·의료	67,941 (6.3)	65,824 (10.3)	2,117	57,936 (4.6)
교육	22,264 (2.1)	13,180 (2.1)	9,084**	113,783 (9.0)
교양·오락	46,233 (4.3)	25,267 (4.0)	20,966**	60,925 (4.8)
교통·통신	98,139 (9.1)	51,919 (8.2)	46,220**	158,622 (12.5)
기타소비지출	278,532 (25.8)	139,734 (21.9)	138,798**	246,468 (19.5)

*p<.05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와 비취업노인가계의 소비지출규모는 총소비지출규모에서 뿐만 아니라 주거비와 보건의료비를 제외하고 모든 비목에서 취업가계의 지출규모가 유의미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의 비목별 지출비중을 살펴보면 취업노인가계의 경우는 기타소비지출, 식료품, 교통통신비, 피복신발비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취업노인가계의 경우는 식료품비, 기타소비지출의 비중이 높은 것은 취업노인가계와 비슷하나 보건의료비의 비중이 10.3%로 세 번째로 비중이 높은 것에는 차이가 있다. 취업노인가계의 소비지출패턴은 비노인가계에서 비취업노인가계로 넘어가는 단계상 나타나는 패턴으로 사료된다.

3) 단독노인가계, 부부노인가계, 자녀동거노인가계의 비교

가계경제수지의 비교 : 〈표 9〉는 노인가계를 가구 구성에 따라 단독가계, 부부가계, 자녀동거가계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이다. 노인가계를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F검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가계소득, 소비지출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난 것은 가구구성원의 수를 반영한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1인당 가처분소득을 구하

여 보아도 세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부부노인가계의 1인당 가처분소득이 가장 높으며, 자녀동거노인가계가 그 다음으로 높았다. 단독노인가계의 1인당 가처분소득 수준이 가장 낮았다. 흑자액의 규모는 자녀동거노인가계가 가장 높고 단독노인가계의 흑자규모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균 소비성향은 부부노인가계와 단독노인가계는 90%를 넘으나 자녀동거가계의 경우는 8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1인당 가처분소득과 1인당 소비지출수준을 비교하여 보면, 부부노인가계의 1인당 가처분소득수준은 비노인가계의 90.2%에 이르나 자녀동거노인가계는 79.6%이며 단독노인가계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비노인가계의 6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소비지출수준의 경우 부부노인가계는 비노인가계에 비해 9.1%를 상회하는 수치를 보였으며, 반면 단독노인가계 및 자녀동거가계는 비노인가계의 89.0%, 86.4%였다.

소득규모와 소득원의 비교 : 〈표 10〉에서 가구 구성에 따른 노인가계의 소득원천별 소득규모 및 구조를 살펴본 결과 모든 항목에서 세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총가계소득이 자녀동거노인가계가 가장 많았고 부부가계, 단독노인가계의 순서

〈표 9〉 노인가계: 단독가계, 부부노인가계, 자녀동거가계의 가계경제수지 비교

(단위: 원,%)

구 분	단독노인가계	부부노인가계	자녀동거노인가계	F값	비노인가계
①가계소득	458,730 (22.5) ^b	1,243,646 (61.2)	1,845,031 (90.8)	278.07**	2,030,963 (100.0)
②비소비지출 ^a	83,281 (48.1)	148,578 (85.9)	170,577 (98.6)	11.20**	172,951 (100.0)
③가처분소득(①-②)	375,449 (20.2)	1,095,069 (58.9)	1,674,454 (90.1)	316.51**	1,858,012 (100.0)
· 1인당가처분소득	375,449 (61.8)	547,534 (90.2)	483,007 (79.6)	28.16**	606,689 (100.0)
④총소비지출	368,244 (29.0)	903,523 (71.3)	1,213,649 (95.8)	228.48**	1,266,182 (100.0)
· 1인당소비지출	368,244 (89.0)	451,761 (109.1)	357,599 (86.4)	13.91**	413,966 (100.0)
⑤흑자액(③-④)	7,205 (1.2)	191,546 (32.3)	460,805 (77.8)	42.64**	591,830 (100.0)
⑥평균소비성향(④/③)	92.24	93.46	81.58	5.10**	71.18

^p<.05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a 비소비지출은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등이 포함된다.^b 괄호 안은 비노인가계를 100%로 하였을 때의 상대적 비율임.

〈표 10〉 단독노인가계, 부부노인가계와 자녀동거노인가계의 소득원천별 규모 및 구조 비교

(단위: 천원, %)

구 분	단독노인가계	부부노인가계	자녀동거노인가계	F값	비노인가계
총가계소득(연평균)	5,505 (100.0)	14,924 (100.0)	22,140 (100.0)	278.07**	24,372 (100.0)
○근로소득	1,233 (22.4)	4,421 (29.6)	12,352 (55.8)	286.57**	14,776 (60.6)
· 가구주소득	1,233 (22.4)	3,905 (26.2)	5,746 (26.0)	75.58**	11,561 (47.4)
· 배우자소득	0 (0.0)	516 (3.4)	859 (3.9)	26.52**	1,732 (7.1)
· 기타가구원소득	0 (0.0)	0 (0.0)	5,746 (26.0)	412.83**	1,483 (6.1)
○사업소득	525 (9.5)	3,793 (25.4)	4,995 (22.6)	38.47**	7,446 (30.6)
○부업소득	52 (0.9)	105 (0.7)	101 (0.5)	4.31*	114 (0.5)
○재산소득	1,283 (23.3)	3,001 (20.1)	1,867 (8.4)	19.55**	1,000 (4.1)
○이전소득	2,412 (43.8)	3,603 (24.1)	2,827 (12.8)	19.97**	1,035 (4.2)
· 연금수혜	130 (2.4)	1,242 (8.3)	787 (3.6)	31.97**	89 (0.4)
· 사회보장수혜	185 (3.4)	155 (1.0)	79 (0.4)	6.39**	26 (0.1)
· 기타이전소득	2,097 (38.1)	2,206 (14.8)	1,960 (8.8)	1.69	921 (3.8)

^p<.05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로 나타났듯이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순서도 자녀동거노인가계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재산소득, 부업소득, 이전소득은 부부가계가 가장 많았다. 그렇지만 여전히 단독노인가계의 이전소득의 사회보장수혜와 기타이전소득을 제외하고는 모든 원천의 소득규모는 가장 낮은 편이었다.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단독노인가계는 이전소득, 특히 연금이나 사회보장수혜와 같이 제도화되어 안정적인 이전소득이 아닌 기타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

가 38.1%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재산소득, 근로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부노인가계의 경우는 다양한 소득원에 대한 의존도가 골고루 나타나고 있다. 소득의 비중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재산소득의 순서로 나타났으나 모두 20%이상을 차지하였다. 자녀동거가계의 경우는 근로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55.8%로 가장 높았으며 사업소득이 그 다음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른 유형의 노인가계보다 이전소득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구성에 따라 구분된 노인가계를 비노인가계와 비교하면, 소득원천별 비중에 큰 차이가 보여진다. 자녀동거노인가계의 경우 비노인가계와 상대적으로 유사한 측면을 보이며, 단독노인가계와 부부노인가계의 소득원천은 많은 차이가 보여지고 있다.

소비지출의 비교 : <표 11>에서 가구구성에 따른 비목별 소비지출의 규모와 비중을 살펴보았다. 총소비지출의 규모는 이미 가계수지분석에서 제시하였듯이 자녀동거노인가계, 부부노인가계, 단독노인가계의 순으로 높았는데, 모든 비목별 지출규모의 순서도 이와 동일하였다. 그러나 보건의료비의 경우는 부부노인가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녀동거노인가계, 단독노인가계의 순이었다. 지출비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단독노인가계의 경우는 식료품비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기타소비지출이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광열수도비, 주거비, 보건의료비의 지출비중이 높았다. 부부노인가계의 경우는 기타소비지출, 식료품비,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광열수도비의 순이다. 자녀동거노인가계의 경우는 기타소비지출, 식료품비의 비중이 월등히 큰 것은 다른 가계와 동일한데, 교통통신비, 외식비, 피복신발비와 같은 사회활동을 위한 지출비목이 그 다음

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비노인가계의 소비패턴과 비슷한 결과이다.

3. 가계의 자산상태 분석

1)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비교

순저축보유액의 비교 : <표 12>는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저축 및 부채규모와 구성비를 통하여 자산상태를 살펴본 것이다. 노인가계는 평균 14,119천원의 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노인가계의 저축규모는 이보다는 높은 16,878천원을 보였다. 그러나 노인가계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가계의 순저축보유액이라는 측면에서는 노인가계나 비노인가계의 수치가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노인가계의 순저축보유액이 비노인가계와 유사하게 나왔더라도 특히 근로소득이 제한되는 시점에서 재산소득이 비중이 높아져야 하는 맥락에서 보면 노인가계의 저축보유규모는 연이율을 10%라고 치더라도 연간 11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이다.

저축구조의 비교 : 금융자산 운영형태 측면에서 각각의 유형별 저축규모를 보면,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요구불저금, 저축성저금, 비은행권저축금액은

<표 11> 단독노인가계, 부부노인가계와 자녀동거노인가계의 지출비목별 소비지출규모 및 구성비

(단위: 원, %)

구 분	단독노인가계	부부노인가계	자녀동거노인가계	F값	비노인가계
총소비지출	368,244 (100.0)	903,523 (100.0)	1,213,649 (100.0)	228.48**	1,266,182 (100.0)
식료품	95,151 (25.8)	214,344 (23.7)	251,183 (20.7)	304.22**	232,003 (18.3)
외식	11,726 (3.2)	48,007 (5.3)	108,312 (8.9)	109.48**	109,619 (8.7)
주거	35,260 (9.6)	43,686 (4.8)	55,605 (4.6)	2.11	51,847 (4.1)
광열·수도	39,264 (10.7)	67,068 (7.4)	71,323 (5.9)	128.57**	65,471 (5.2)
가구집기·가사용품	18,797 (5.1)	38,778 (4.3)	54,197 (4.5)	11.14**	54,559 (4.3)
피복·신발	16,306 (4.4)	48,309 (5.3)	96,544 (8.0)	102.72**	114,950 (9.1)
보건·의료	33,086 (9.0)	100,550 (11.1)	68,649 (5.7)	44.41**	57,936 (4.6)
교육	167 (.05)	916 (0.1)	47,173 (3.9)	226.27**	113,783 (9.0)
교양·오락	11,845 (3.2)	38,101 (4.2)	53,096 (4.4)	31.89**	60,925 (4.8)
교통·통신	23,390 (6.4)	73,741 (8.2)	117,865 (9.7)	92.73**	158,622 (12.5)
기타소비지출	83,250 (22.6)	230,023 (25.5)	289,701 (23.9)	77.88**	246,468 (19.5)

*p<.05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통계적으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노인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 유가증권, 계불입금, 빌려준 돈의 규모는 비노인가계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각각의 저축방법에 대한 비중을 살펴보면 노인가계나 비노인가계 모두 저축성저금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편이었으나, 노인가계의 경우는 은행권 및 비은행권저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비노인가계의 경우는 은행권과 비은행권 저축뿐만 아니라 보험, 유가증권, 사금융권이용 등 보다 다양한 형태의 저축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구조의 비교 : 노인가계의 부채규모는 비노인가계의 부채규모의 절반 정도로 적은 편이기는 하지만 노년기는 신용카드나 판매금융의 편의적 이용을 제외하고는 미래소득을 담보로 하는 가계부채의 활용이 권장되는 시기는 아니다. 노인가계는 모든 유형의 부채에 있어 비노인가계보다는 적게 보유하고 있었다. 부채유형별 보유비중을 보면 노인가계나 비노인가계 모두 은행권 부채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노인가계의 경우는 비은행권부채, 할

부/외상잔액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고, 비노인가계의 경우는 할부/외상잔액, 비은행권부채의 비중 순으로 높았다.

2)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의 비교

순저축보유액의 비교 : <표 13>에서는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의 자산상태를 살펴보았다. 취업노인가계는 평균 15,542천원의 저축을 하고 4,797천원의 부채를 보유함으로써 10,744천원의 순저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노인가계는 12,925천원의 저축을 보유하고 1,636천원의 부채를 보유하여 11,289천원의 순저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저축보유액은 취업노인가계가 비취업노인가계보다 유의하게 더 많았고 부채총잔액도 취업노인가계가 비취업노인가계보다 많았다. 그러나 순저축저축보유액은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의 순자산보유액은 유사한 수준이며, 이 수치는 비노인가계의 순자산 보유

〈표 12〉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저축/부채규모 및 구성비 비교

(단위: 천원, %)

구 분	노인가계(1)	비노인가계(2)	(1)-(2)(t-검정)
요구불저금	2,587 (18.3)	2,763 (16.4)	-176
저축성저금	5,758 (40.8)	5,789 (34.3)	-31
비은행권저금	2,531 (17.9)	2,105 (12.5)	426
보험	974 (6.9)	2,878 (17.1)	-1,904**
유가증권	334 (2.4)	757 (4.5)	-423**
계불입금	502 (3.6)	877 (5.2)	-375**
빌려준 돈	1,433 (10.1)	1,708 (10.1)	-275
① 총저축보유액	14,119 (100.0)	16,878 (100.0)	-2,759**
은행권부채	1,782 (57.9)	3,331 (54.1)	-1,549**
비은행권부채	443 (14.4)	670 (10.9)	-227**
보험	81 (2.6)	382 (6.2)	-301**
할부/외상잔액	398 (12.9)	845 (13.7)	-447**
계탄 돈	229 (7.4)	410 (6.7)	-181**
빌린 돈	145 (4.7)	517 (8.4)	-372**
② 부채총잔액	3,078 (100.0)	6,155 (100.0)	-3,077**
①-② 순저축보유액	11,041	10,723	318

*p<.05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액과도 유사한 수준이다.

저축구조의 비교 :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의 저축유형별 규모를 살펴보면, 두 집단간의 차이를 보인 저축유형은 보험과 계불입금이다. 취업노인가계의 보험과 계불입금액이 비취업노인가계보다 많았다. 반면 요구불저금, 저축성저금, 비은행권저축, 유가증권 및 빌려준 돈의 금액은 취업노인가계나 비취업노인가계가 유사한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비중으로 살펴보면, 취업노인가계의 경우 저축성저금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요구불저금, 비은행권저금으로 나타났고 이들 세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75.9%에 이른다. 비취업노인가계의 경우도 이들 세 저축유형의 비중이 78.1%를 차지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빌려준 돈, 유가증권, 요구불저금, 비은행권저금의 비중은 비취업노인가계에서 더 높고, 저축성저금, 보험, 계불입금의 비중은 취업노인가계가 더 높은 편이었다.

총저축보유액에 있어서는 취업노인가계는 비취업노인가계보다 비노인가계와 더 비슷하고, 소득이나

소비구조에 있어서도 비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의 중간적인 패턴을 보여주었으나 저축활용면에 있어서는 이러한 패턴이 드러나지 않는 듯하다.

부채구조의 비교 : 취업노인가계의 부채규모는 비취업노인가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크다. 또한 모든 유형별 보채보유금액도 취업노인가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노인가계의 부채비중은 은행권부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비은행권부채, 할부/외상잔액순으로 높았다. 비취업노인가계의 경우도 유형별 부채비중 순서는 취업노인가계와 동일하다. 그러나 은행권부채와 빌린 돈의 비중이 취업노인가계가 비취업노인가계보다 더 높았고, 비은행권부채, 할부/외상잔액과 계탄 돈은 비취업노인가계가 취업노인가계보다 더 높았다.

3) 단독노인가계, 부부노인가계, 자녀동거노인가계의 비교

순저축보유액의 비교 : 가구구성에 따른 노인가계의 자산부채상태를 살펴보면 <표 14>와 같다. 단독

<표 13>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의 저축/부채규모 및 구성비 비교

(단위: 천원, %)

구 분	취업노인가계(1)	비취업노인가계(2)	(1)-(2)(t-검증)	비노인가계
요구불저금	2,767 (17.8)	2,436 (18.8)	331	2,763 (16.4)
저축성저금	6,519 (41.9)	5,120 (39.6)	1,399	5,789 (34.3)
비은행권저금	2,516 (16.2)	2,544 (19.7)	-28	2,105 (12.5)
보험	1,510 (9.7)	524 (4.1)	986**	2,878 (17.1)
유가증권	278 (1.8)	380 (2.4)	-102	757 (4.5)
계불입금	854 (5.5)	206 (1.6)	648**	877 (5.2)
빌려준 돈	1,098 (7.1)	1,714 (13.3)	-616	1,708 (10.1)
① 총저축보유액	15,542 (100.0)	12,925 (100.0)	2,617*	16,878 (100.0)
은행권부채	2,918 (60.8)	830 (50.7)	2,088**	3,331 (54.1)
비은행권부채	599 (12.5)	312 (19.1)	287*	670 (10.9)
보험	146 (3.0)	27 (1.7)	119**	382 (6.2)
할부/외상잔액	548 (11.4)	271 (16.6)	277*	845 (13.7)
계탄 돈	336 (7.0)	139 (8.5)	197**	410 (6.7)
빌린 돈	250 (5.2)	56 (3.4)	194**	517 (8.4)
② 부채총잔액	4,797 (100.0)	1,636 (100.0)	3,161**	6,155 (100.0)
①-② 순저축보유액	10,744	11,289	-545	10,723

*p<.05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노인가계의 순저축보유액이 가장 적었으며 자녀동거노인가계가 중간이며, 부부노인가계가 가장 많았다. 단독노인가계는 평균 5,820천원의 저축을 하고 965천원의 부채를 보유함으로써 4,855천원의 순저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노인가계는 19,861천원의 저축을 보유하고 3,217천원의 부채를 보유하여 16,644천원의 순저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동거노인가계는 평균 16,788천원의 저축을 하고 4,896천원의 부채를 보유함으로써 11,892천원의 순저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저축보유액은 부부노인가계가 가장 많았고 단독가계가 가장 적었다. 부채총잔액은 자녀동거가계가 가장 많았고 단독노인가계가 가장 적었다. 비노인가계와 비교하여 보면 자녀동거가계의 순저축저축보유액이 가장 비슷하고 부부노인가계의 순저축보유액은 비노인가계보다 5,921천원이 더 많다.

저축구조의 비교 : 노인가계의 가구구성에 따른 저축구조를 살펴보면, 모든 유형의 저축규모에 있어서 세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총저축보유액과 마찬가지로

요구불저금, 저축성저금, 비은행권저금, 유가증권, 빌려준 돈의 규모가 부부가계가 가장 컸고 단독가계가 가장 작았다. 그러나 보험, 계불입금은 자녀동거노인가계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모든 가계유형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저축수단은 저축성저금이었는데, 특히 단독노인가계와 부부노인가계의 비중이 자녀동거노인가계의 비중보다 더 높았다. 단독노인가계는 적은 규모의 자산으로 인하여 요구불저금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 및 비은행권저금의 비중은 85.8%이다. 빌려준 돈의 비중은 단독노인가계보다 부부노인가계나 자녀동거노인가계의 경우보다 높은 경향이었으며, 보험과 계불입금의 비중은 자녀동거노인가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었다. 비노인가계와 비교하여 보면 세 집단 중 자녀동거가계가 가장 유산한 저축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구조의 비교 : 부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

(표 14) 단독노인가계, 부부노인가계와 자녀동거노인가계의 저축/부채규모 및 구성비 비교

구분	(단위: 천원, %)				
	단독노인가계	부부노인가계	자녀동거노인가계	F값	비노인가계
요구불저금	1,294 (22.2)	3,428 (17.3)	3,049 (18.2)	22.36**	2,763 (16.4)
저축성저금	2,524 (43.4)	8,906 (44.8)	6,015 (35.8)	24.27**	5,789 (34.3)
비은행권저금	1,177 (20.2)	3,293 (16.6)	3,117 (18.7)	6.12**	2,105 (12.5)
보험	305 (5.2)	940 (4.7)	1,616 (9.6)	41.04**	2,878 (17.1)
유가증권	52 (0.9)	581 (2.9)	379 (2.3)	4.18*	757 (4.5)
계불입금	128 (2.2)	561 (2.8)	794 (4.7)	22.35**	877 (5.2)
빌려준 돈	340 (5.8)	2,151 (10.8)	1,819 (10.8)	5.13**	1,708 (10.1)
① 총저축보유액	5,820 (100.0)	19,861 (100.0)	16,788 (100.0)	51.30**	16,878 (100.0)
은행권부채	295 (30.6)	2,150 (66.8)	2,829 (57.8)	9.49**	3,331 (54.1)
비은행권부채	258 (26.7)	306 (9.5)	731 (14.9)	5.24**	670 (10.9)
보험	6 (0.6)	37 (1.2)	188 (3.8)	7.60**	382 (6.2)
할부/외상잔액	307 (31.8)	323 (10.0)	545 (11.1)	1.71	845 (13.7)
계단 돈	72 (7.5)	308 (9.6)	305 (6.2)	5.69**	410 (6.7)
빌린 돈	27 (2.8)	93 (2.9)	297 (6.1)	39.82**	517 (8.4)
② 부채총잔액	965 (100.0)	3,217 (100.0)	4,896(100.0)	16.87**	6,155 (100.0)
①-② 순저축보유액	4,855	16,644	11,892	30.47**	10,723

* $p < .05$ ** $p < .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는 가계는 자녀동거가계이다. 자녀동거가계의 부채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은행권부채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았고 비은행권부채, 할부/외상잔액의 비중이 높았다. 부부노인가계의 부채유형별 비중은 은행권 부채가 66.8%였는데 이는 다른 집단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단독노인가계의 경우는 할부/외상잔액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은행권부채의 비중도 30.6%로서 다른 유형에 대한 비중보다는 높기는 하였으나 부부노인가계나 자녀동거가계, 비노인가계의 은행권부채비중보다는 매우 낮은 수치이다. 단독노인가계는 또한 비은행권부채 비중도 다른 가계보다 높은 편이었다. 세 집단 중 비노인가계와 가장 유사한 집단은 자녀동거노인이다.

V. 결어

본 연구는 노인가계의 가계경제구조를 분석하였으며, 특히 노인가계를 취업여부별 및 단독가계, 부부가계, 자녀동거가계 등 가구구성형태별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가계에 대한 경제적 복지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며, 재무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가계의 경제적 복지수준과 관련하여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노인가구는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평가할 수 없는 각 집단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가계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주가 취업 중이나 아니냐에 따라 가계경제구조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는데, 취업을 하고 있는 노인가계의 경우는 거의 비노인가계와 유사한 가계경제상태를 보이는 반면, 비취업노인가계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노인가계경제의 취약성을 그대로 안고 있는 형태였다. 또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들이 부부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단독노인가계는 대개가 여성들로 가장 취약한 가계경제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노인가계를 연구하고 또 노인 집단을 정책적으로 고려함에 있어서 일률적인 연령에 의한 노인가계의 설정은 비효율적임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최근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개발된 생계형

저축은 단순한 연령을 기준으로 가입이 결정되는데 '생계형'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가입기준을 마련하여야 보다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계재무설계에 대한 본 연구의 유용성은 노년가계의 변화에 따른 재무설계의 기본자료의 정리 작업을 수행했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생애주기 단계, 특히 노년기에 있어서의 중요한 가계사건인 은퇴와 가구구성상의 변화에 따른 가계경제상의 변화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가계재무설계, 노후설계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인 수입과 지출상태, 자산 및 부채상태에 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가계경제구조상의 유사성을 근거로 보면 대체적으로 노인가계로 전이하는 과정은 비노인가계→취업노인가계→비취업노인가계의 단계를 밟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구구성상 비노인가계→부부노인가계→단독노인가계의 과정을 겪는 가계가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노년기 가계의 변화에 따른 노후설계는 개인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사회의 평균적인 자료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더욱 적합하고 타당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산상태의 분석에서 노인가계의 재산소득의 중요한 원천이 되는 실물자산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유동성자금의 분석이라는 측면에서의 금융자산을 1차적인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나 노년기의 실물자산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구구성과 가구의 취업여부에 따른 노인가계의 기술적인 분석에 그쳤으나 보다 세분화된 노인가계, 여러 변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구분된 노인가계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초자료의 제공작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새로운 자료를 갖고 지속적으로 제공될 때 보다 의미가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고철기·박농후·김성희·이경은(1992). 노령계층의 소득보장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연정(1998). 은퇴노인가계와 취업노인가계의 소득, 지출 및 자산의 비교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7), 57-67.
- 문숙재·김순미·김연정(1996).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비교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223-235.
- 서병숙(1993). 노인연구. 교문사.
- 성영애(1994). 미국 은퇴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4), 32-43.
- 심 영(1993). 가계부채가 소비패턴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4(2), 29-50.
- 심 영(2000). 단독가계 노인소비자의 소득, 자산, 소비지출 분석. *소비문화연구* 3(1), 121-145.
- 이가옥·서미경·고경환·박종돈(1994).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기춘·박명희·윤정혜·손상희·김경자·성영애(1998). 소비자재무설계론. 서울: 학현사.
- 이윤금(1999). 노인가계의 식료품비 지출규모 및 관련요인 분석: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4), 73-86.
- 임춘식(1995).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유평출판사.
- 통계청(1995). 경제활동인구연보.
- 통계청(1997). 가구소비실태조사보고서 1996.
- 통계청(2000). 연령별 추계연구. www.nso.go.kr.
- 최현자(1996). 가계의 신규부채수요 결정요인과 부채이용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3), 59-73.
- Clark, R., J. Krepes & J. Spengler(1978). Economics of aging: a surv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16, 919-962.
- Garman, E. T. & Forgue, E. Raymond (1994). *Personal finance*, 4th ed, Boston, Toronto : Houghton Mifflin Company.
- Hurd, M. D.(1990). Research on the elderly: Economic status, retirement, and consumption and saving.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8, 565-638.
- Moehrl, T.(1990). Expenditure patterns of the elderly: Workers and nonworkers. *Monthly Labor Review* 113(5), 34-41.
- Palmer, M. D., T. Smeeding & C. Jencks(1980). The uses and limits of income comparisons. In J. L. Palmer & I. V. Sawhill(eds.). *The Vulnerable* (9-27).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Press.
- Radner, D. B.(1989). The wealth of the aged and nonaged, 1984. In R. E. Lipsey & H. S. Tice (eds.). *The Measurement of Saving, Investment, and Wealth(Studies in Income and Wealth, Vol. 52, 645-684)*,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 Rubin, R.M., & Nieswiadomy, M.(1994). Expenditure patterns of retired and nonretired persons. *Monthly Labor Review* 117(4), 10-21.
- Torrey, B. R. & C. M. Tauber(1989). The importance of asset income among the elderly, *Review of Income and Wealth* 32(4), 443-450.
- Upp, M.(1983). Relative importance of various income sources of the aged, 1980. *Social Security Bulletin* 46(1), 3-10.